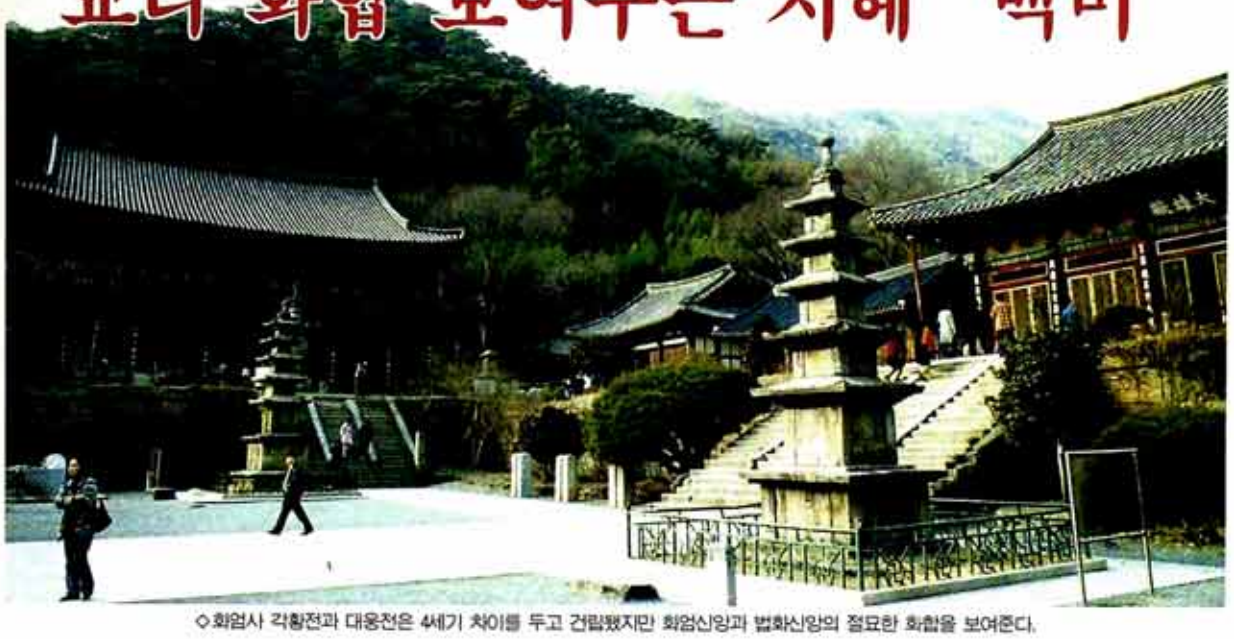
교리 화합 보여주는 지혜 '백미'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은 4세기 차이를 두고 건립됐지만 화엄신앙과 법화신앙의 절묘한 화합을 보여준다.

화엄사 각황전-대웅전

가람의 장면들 17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지리산 화엄사는 건축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찰이다. 이 절의 주불전은 두 건물이다. 유명한 각황전(국보 67호)과 대웅전(보물299호)이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각황전은 원래 장육전이라고 불리워, 거대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3층의 대전각이었다고 전한다. 실내에는 물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화엄경을 새겨서, 돌벽 주변을 돌면서 화엄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장치했다. 틀림없는 화엄신앙의 건물이었다. 반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고, 지어진 연대도 각황전보다는 4세기경 뒤라고 추정된다. 대웅전은 법화신앙의 소산이며, 각황전의 화엄신앙과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 각황전은 규모가 큰 2층 건물이다. 반면 다웅전은 각황전보다 작은 단층건물이다. 건물의 격식과 규모로만 본다면, 각황전이 단연 화엄사의 주불전이다. 교리적으로도 화엄신앙의 각황전이 화엄종 화엄사의 주불전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마당의 정면에 놓여진 것은 대웅전이고, 각황전은 마당의 한쪽 끝에 놓여져, 위치적으로는 대웅전이 주불전의 자리에 앉았다. 규모로 보면 각황전이, 위치로 보면 대웅전이 주불전이 되어, 화엄사에는 두 개의 중심 전각이 존재하는 셈이다.

화엄사 본 마당에 오르려면, 보제루의 동쪽 끝을 돌아 마당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광경이 바로 화엄사의 주된 표정으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커다란 각황전과 작은 대웅전의 크기와 높이가 거의 같게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다. 즉, 본 마당의 입구로부터 각황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웅전은 가깝다. 또한, 본 마당은 가자의 석단을 물러 조성하고, 석단 위에 건물들이 배치되는데, 각황전은 석단에서 멀리 물러 앉았고, 대웅전은 가깝게 다가 앉았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서 각황전과 대웅전은, 그 절대적 크기와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로 보이며, 두 개의 동등한 중심 전각의 위상을 갖게 된다.

왜 이처럼 의도했을까? 화엄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원래 화엄사는 절 이름과 같이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창건되었다. 그리고 현 각황전 자리에 장육전을 짓고 중심 전각으로 삼았다. 이때만 해도 아직 대웅전은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육전 앞에는 一자 석축만 쌓고, 그 아래 마당에 하나의 탑을 세웠다. 지금의 화엄사 서탑이다. 이처럼 창건시에는 1금당 1탑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화엄신앙의 1탑 1금당
법화신앙의 대웅전 쌍탑
서로 마주보며 공존

가람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고려 초기라고 추정된다. 신라말, 이른바 후삼국시기에 화엄종은 두 파로 갈리게 된다. 혜인사를 중심으로 한 북악파는 왕건의 편에 서서 고려 건국의 승리자가 되고, 화엄사를 중심으로 한 남악파는 견훤의 편에 섰다가 패배자가 되고 만다. 남악파의 중심이었던 화엄사는 이 때 주인이 바뀌어, 더 이상 화엄종의 사찰이 아니라 법화신앙 계열 (혹은 선종계열)의 사찰로 소속이 변화한다. 법화신앙계 가람은 흔히 쌍탑식 형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불국사 대웅전 앞 마당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를 형상화 한 것으로, 법화신앙의 중요한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탑과 나란히 동탑을 세워 쌍탑 형식을 완성했다. 현재 본 마당에 있는 쌍탑은 동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서탑이 단독으로 세워진 후, 150년 후 쯤에 동탑이 추가된 것이다. 자세히 비교하면 두 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법화신앙의 상징 불전인 대웅전을 세워서 가람의 중심 전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장육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웅전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육전은 없애기에는 너무나 장중하고 중요한 전각이었다. 따라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고, 장육전의 자리를 피해 새로운 자리에 대웅전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현재의 자리를 골랐고, 가람의 주 진입 방향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원래는 현재 승방이 있는 동쪽 계곡에서 올라오던 것을, 지금과 같이 계곡을 타고 남쪽에서 오르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위치상으로 대웅전이 가람의 중심이 되게 된다. 또한, 대웅전 앞에 새로 추가된 동탑은 자연스럽게 대웅전 소속이 되어, 각황전-서탑 / 대웅전-동탑의 구도가 완성되고, 기존의 1탑1금당제의 화엄사찰의 건축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웅전+쌍탑제라는 법화신앙의 가람형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종파와 교리가 바뀌었지만, 과거의 형식을 존중하여 보존하고, 그 위에 새로운 형식을 추가했던 옛 스님들의 겸손과 지혜야말로,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아직도 지속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 화엄사 앞 마당에 설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축적 장면이요, 역사의 증명이며, 교리적 화합이다.

사찰 도서실 필요성 '공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결산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토로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사찰 도서실 설립 붐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불교신문이 올 한해 동안 '우리 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연중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결실 중 하나다.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서에 대한 열의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조성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중의 하나라 할 만하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쌍계사승가대학에 불서를 기증하고 후속적인 기증과 도서관관리지도를 약속했다.

동산반야회·망월사·쌍계사등 동참
재정난 이유 외면 사찰많아 아쉬움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반 불자들이다. "내가 다니는 사찰에 작은 도서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서부터 "불서를 구입해서라도 돕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그동안 소장하고 있는 불서를 모두 기증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 불자들이 독려와 동참의사를 전해왔다. 사찰과 신행단체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신행단체로는 동산반야회가, 사찰은 대구 망월사가 캠페인에 동참,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동산반야회는 사무실에 쌓여 있는 도서를 정리하는 한편 재학생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법공양운동을 전개해 불서를 모으고 있다. 불교대학 학인들의 교재와 참고도서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 동산반야회는 군법당과 교도소, 미국 시애틀 등지에 불서보내기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구 망월사는 본지 캠페인을 보고 기존 문고형을 도서실 형태로 확장, 신도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불서읽기 운동을 전개해 귀감이 됐다.

특히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소장 도서 기증은 캠페인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중 하나다. 승가대학 도서관 활성화에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학인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강원)에 도서실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정 원장은 논문, 학술서 등 소장불서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정 원장은 쌍계사 승가대학에 110종 221권을 1차분으로 전달하고, 후속적인 불서 기증과 전문사서를 통한 도서관리 지도도 약속했다. 쌍계사는 정 원장을 비롯 신도들이 기증한 도서로 내년초 도서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지의 연중캠페인으로 인해 도서실을 개관하고 있는 기존 사찰은 도서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도서실이 없는 사찰의 경우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불서읽기 확산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실을 연 경우는 기대 이하였다. 대부분 사찰들이 취지에는 동감했지만 막상 도서실을 여는 데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첫째 원인이 예산부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 강조했듯이 도서실의 마련은 예산보다는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사찰들이 예산이나 공간부족 등을 탓하지 말고 미래불교를 위한 인재불사 일환으로 도서실 만들기 불사에 나서길 바란다.

사찰도서실은 독서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사찰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초심불자들의 소양함양에서부터 신행 포교를 위한 기반 시설이다. 책을 대여해주고 읽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신행과 삶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광생 교육의 장이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동안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사찰 전체가 책 읽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후감대회, 독서퀴즈대회, 독경대회, 도서전시회, 헌책 바꿔읽기, 바자회 등이 그 대안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래의 신행패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신도들의 욕구 또한 더 이상 법당에만 안주하길 꺼려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서읽기'는 바른 신행의 으뜸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사찰 도서실은 불자들의 깊이 있는 신행생활과 다양한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21세기를 힘차게 내달을 수 있는 '준비도량'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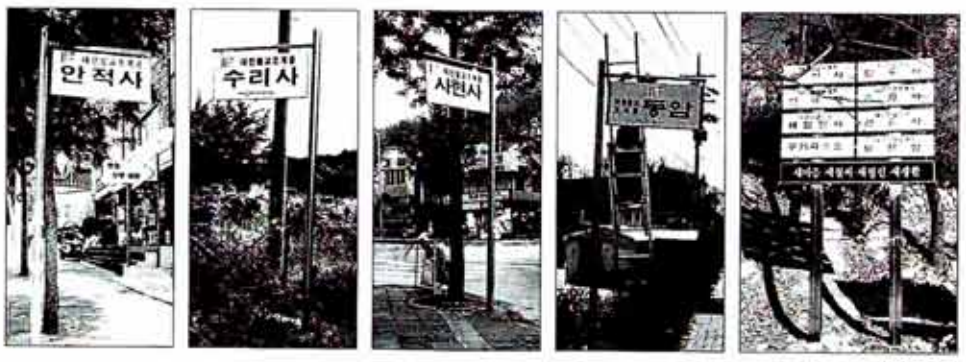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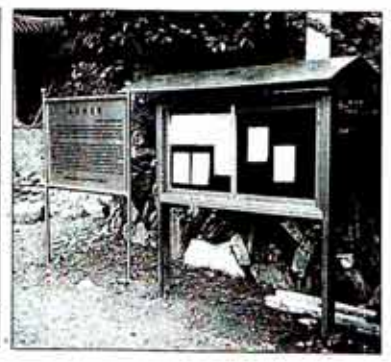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